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063-220-2410 ~ 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1일 월요일 (음 6월 29일) 제16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건설경기 불황 “아직도 여전”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기 침체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건설경기 불황은 시공능력평가 실적에서도 잘 나타났고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타 지역업체의 수주는 전북 건설사들을 육박하고 있어 건설경기 악화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해 기계설비 건설업과 가스 시설 시공업 1종 기업들의 시공능력평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도내에서 시공중인 대형 시설물 또는 주거공간인 아파트 공사를 타 지역업체들이 시공하면서 도내 기계설비업체들을 위면, 업체들의 수익성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반영하듯 기계설비공사업 202개사 가운데 올해 시공능력 300억원 이상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또 200억원 이상은 1개사, 100억원 이상은 2개사에 불과했다.

가스시설 시공업 부문은 더 암울하다.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44개사 중 100억원 이상 시공능력 대상업체가 아예 없었다.

10억원 이상 업체도 지난 2015년 39개사에서 올해는 30개사로 오히려 쪼그라 들었다.

전문건설 부문도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지난해와 동일했지만 100억



다시 그들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달 29일 오후 어느 공원에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시공능력 저조로 대형 사업 발주참여 제한 최근 도입 ‘종합심사낙찰’ 중소기업체에 악재

원 미만 50억원 이상은 4.1%에서 3.5%로 0.6%가 감소했다.

아울러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도 56.1%에서 55.7%로 0.4%가 줄어들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체의 단일공사 수주가능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조한 수익성으로 수주를 자제했던 외지 대형사들이 브

랜드를 앞세워 지역 건설현장 사업에 뛰어들 경우 도내 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내 중소기업체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건설업체는 그동안 낮은 입찰 가격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지만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

제’로 바뀌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여러 요소를 보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중소기업체는 시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시공능력평가가 낮으면 대형 국책 건설사업 발주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참여한다고 해도 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등 영업환경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광영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며 전북인론의 미래를 개척코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사세확장의 일환으로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격 조건
취재기자(경력·수습)	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접수기간 2016년 8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4층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국민의당, 비대위 체제 후 안정 찾다니

김수민 사태로 또다시 ‘몸살’

검찰의 영장청구로 인해

비대위 체제 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국민의당에 김수민 사태가 ‘상시 뇌관’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영장 청구로 대혼란에 빠졌다. 공교롭게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을 맞은 시점이다.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동반사퇴까지 했지만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하자마자 당 분위기가 속절없이 어수선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찰개혁으로 응수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언제 또 김수민 사태로 인한 혼란이 터져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실제 김수민 사태는 잇을 만하면 다시 불거지며 수시로 당의 불안요소가 돼 왔다.

6월 초 국민의당이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를 필두로 3당 간 원구성 협상을 이끌어 신속한 개원을 이뤄냈지만, 개원 직후 김수민 사태가 터지면서 이같은 공로는 빛이 바랬다. 김수민 사태는 이후 6월 중순까지

국민의당의 각종 이슈를 잠식했다.

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자 국민의당은 정부의 김해 신평항 발표 및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형 이슈에도 불구하고 김수민 사태 비판 여론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안철수 전 삼일공동대표와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이에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후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한동안 당 분위기는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지난달 8일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동시 영장청구를 하며 재차 악재가 터졌다.

이번 검찰의 영장 재청구까지 치면 국민의당으로선 벌써 세 번이나 김수민 사태로 몸살을 앓다 일어나길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으로선 아무리 고비를 넘겨도 잇을 만하면 김수민 사태가 당의 이슈 블랙홀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박용주 기자

무주군·순창군 인사 명단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전북도가 올해 전복을 대표하는 과일을 뽑는다.

지난달 31일 도에 따르면 과수농업인의 대추제인 2016년 대한민국 대표 과실선발대회(이하 과실대전)에 참여할 전북 최고 과일을 신청 받는다.

올해 농식품부 등이 주관하는 과실대전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 홀에서 열린다.

도는 사과와 복숭아, 배, 포도, 단감 등 5개 품목별로 5농가를 자체 선발

올해 전북의 대표과일은?

도, 과실선발대회 참가과일 신청 접수

해 대실대전 본선에 추천해 과실의 맛과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복숭아와 사과(홍로), 배(원황,화산), 포도(캠벨얼리, 거봉)는 8월 8일까지며 사과(후지)와 배(신고), 단감

(부유)는 9월 23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 각 지역 예선을 거친 과일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고 대상(총리상) 1점과 최우수(장관상) 7점 등 총 24점을 뽑게 된다.

평가는 총 100점 만점에 외관심사의 경우 정형과, 색택, 식미 등에 60점이 주어지며, 계속심사는 당도와 경도, 산도 등 20점을, 과원심사는 20점내에서 심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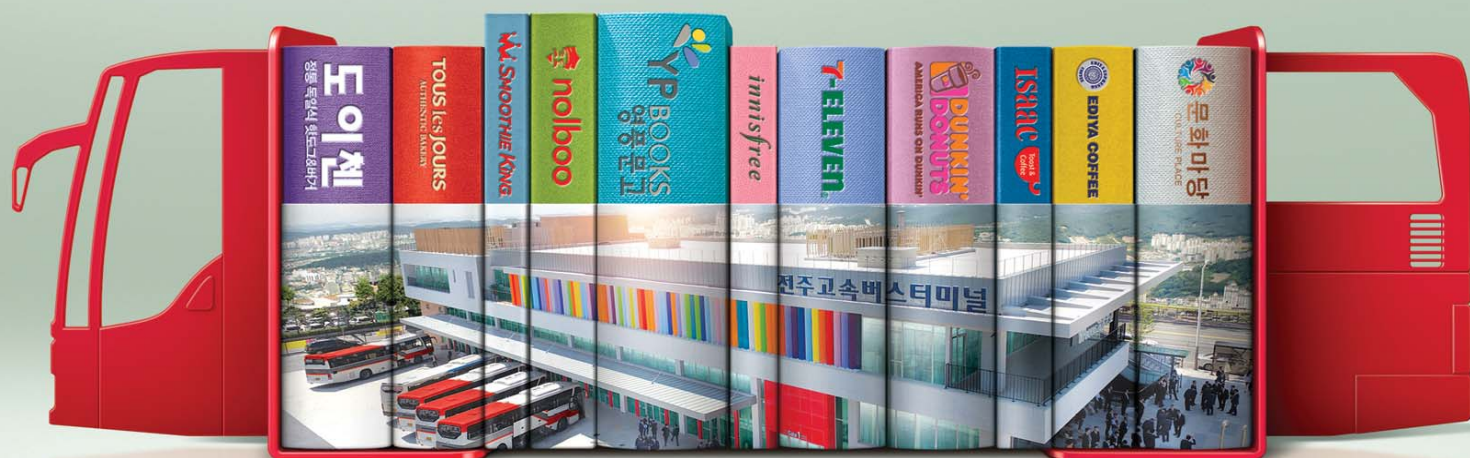
도 관계자는 “전북도는 과수광역 브랜드 ‘예담채’가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 파워브랜드로 위상이 높은 만큼, 애써 키운 과일의 우수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과수전업농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금호터미널

즐거움이 배해곡하다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새단장 오픈!



복합문화관 전주 고속터미널 주요 시설 | 야외공연무대 • 매표실,대합실,고객주차장 • 연킨도너츠,스무디킹,뚜레주르,이디야커피,놀부부대찌개 등 • 대형서점,영품문고